

3. 유생열 영어칼럼

영어를 어떻게 학습할까?



(경인교대, 유생열)

영어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중요한 언어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학문적 기반이 영어를 모태로 하고 여행을 해도 중요한 서적을 봐도 모두가 영어가 통용되니 영어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우리가 영어를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와 어떻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할까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어는 세계의 공용어라는 점이다.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 지구상에서 5명 중 1명은 적어도 영어를 말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영어를 알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영어는 체육을 비롯한 과학, 항공, 컴퓨터, 외교, 국방, 관광의 기본언어이다.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모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영어를 배우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영어는 53개국의 공용어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즉, 북경에서 일하든 칠레를 여행하든 영어를 알면 전 세계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

넷째, 많은 과학 논문이 영어로 작성된다. 지난 세기에 영어로 작성된 과학 논문의 수가 연구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수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는 영어가 매우 중요한 언어로 인식이 된다는 말이다.

다섯째, 영어는 미디어 산업의 언어다. 글로벌 미디어에서 할리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영화, TV 프로그램, 인기곡이 영어로 작성된다.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이제는 번역과 자막에 의존하여 좋아하는 책, 노래,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즐길 필요가 없다.

여섯째, 영어는 인터넷의 언어다. 영어는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의 절반 이상이 영어로 작성된 온라인에서 특히 중요한 언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 중 일부는 영어권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곱째, 영어를 잘하면 여행이 훨씬 쉬워진다. 난 개인적으로 몇 년 전 한 스페인 시골에서 간단한 점심 식사를 주문하는 데만 20분 이상 걸린 적이 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불편하다.

여덟 번째, 영어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다. 비즈니스 소유자, 학생 또는 직원 누구든 외국에 가서 일을 처리해본 사람이라면 세계에서 영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아홉 번째, 영어로 전 세계에서 공부할 수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천 개의 기관과 대학이 있다. 학문적 영어를 잘

3. 유생열 영어칼럼

한다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학교와 과정을 찾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열 번째는 영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영어를 잘하면 전 세계 수백 개국의 영화, 음악 및 문학을 접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귀하와 다른 문화에서 가치, 습관 및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당신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영어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나 투자한 시간에 비해 그 효율성은 매우 낮은 공부를 해왔다. 입시에서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는 중요한 인지 과목 중에 하나였다.

아직도 우리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너무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싶다. 우리가 어느 하나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오히려 집중력에 이상이 생긴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난 내가 속한 학회에서 외국에서 온 학자들의 강연을 통역하면서 이분이 강연한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며 이분이 한 얘기를 너무 집중해서 듣고 옮기려다 보니 귀에 흘려가는 이야기로만 들리지 내가 듣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아마 영어를 하고 우리말로 옮기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누구나가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어를 학습할까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첫째, 영어는 단어가 아닌 구문에 초점을 두어보자. 영어나 그 문제에 관한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 개별 단어를 익히기보다는 문맥에 집중해보자. 문맥 없이는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단어의 의미와 문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훨씬 쉽다.

두 번째는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영어를 많이 들으라고 하고 싶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읽는 것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교과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는 문법과 어휘를 가르치는 데는 훌륭하지만, 대화를 수행하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영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읽기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들으면서 배워야 한다. 더 많이 들으면 유용한 어휘와 문법을 깨닫거나 암기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을 시험할 기회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싶다. 학습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영어 능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내가 어느 분야에서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소통에는 4가지 주요 분야가 있다. 하나는 쓰인 언어를 이해하는 것 (reading comprehension), 들어서 이해하는 것 (listening comprehension), 써서 전달하는 것 (writing), 말하는 것(speaking)이 그것이다.

의사소통에서 4가지 중의 어느 하나를 뺄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이 4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국내에서만 공부했다면 쓰인 영어는 잘하지만, 나머지 3가지 분야는 더 공부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들을 어떻게 연습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나는 의도적으로 공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연습'이란 단어를 썼다. 나는 개인적으로 영어 능력의 향상은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신체 능력을 갖추듯이 공부가 아닌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어를 이해하는 것은 skill이기 때문에 skill을 배우는 것은 적어도 몇 년간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운동을 위한 연습을 하는데 있어서도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듯이 영어연습도 마찬가지로 양보다 질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 짧은 시

간에 수십 개의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 단어를 익히고 수십 번 반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정보 인풋의 과부하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 전략을 사용하면 단어와 구의 의미를 뇌 깊숙이 기억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쉽게 망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문법을 배울 때는 이론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이 문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문법을 적용하여 반드시 예문을 만들어보고 연습에서 이 문법을 써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내가 아는 것과 사용되어진 문법과 유리되어 이론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반드시 이론을 배웠으면 실습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이 없으므로 문법 따로 적용 따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영어 청취연습도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영어 청취는 듣고 반복해왔다. 이제는 듣고 반복하지 말고 듣고 대답하자.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 싶다면 영어책에 나오는 내용을 반복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말고 화자가 말한 단어나 구를 생각 없이 앵무새같이 번역하는 대신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질문이 없다면 본인이 스스로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해도 좋다. 팟캐스트나 비디오를 듣거나 보고 있다면 어느 정도 단위의 시간마다 일시 중지하고 말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지면 관계상 어렵지만, 실제 실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매일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영어로 글을 쓰는 노력을 하는게 좋다. 그러나 말하는 능력은 영어에 대해 많이 안다고 말하는 능력까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군가 같이 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영어를 하는 친구, 또는 지인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는 talking group을 만들어 영어로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도 이러한 방법대로 해보았는데 잘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KCDC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가 중심이 되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SKYPE으로 스피킹위주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분중에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KCDC에 연락하면 참여가 가능하다.